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다. 실제로 문화가 사회 제 분야의 변혁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시대 삶의 방식과 경쟁력도 모두 문화에서 나온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흉내 내고 만들어서야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의 문화가 사회 각 분야의 저변에 번지게 하려면 이벤트나 일회성 행사에 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소재를 발견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조금 다른 예지만 과거 명절이면 흔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잡다한 서커스나 마술 따위의 기예들 역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사장되어버린 아쉬운 추억들이 있다. 이들도 근자에 들어와서 예술가들의 손에서 창의적인 그 무엇으로 탈바꿈하여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여러 장르에서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문화정책 입안자나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만큼 진정으로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식민지시대나 유신시대의 참담한 문화 퇴행시기와는 또 다른 것으로 마치 깨어진 유리파편의 조각에 비친 잔영의 얼룩과도 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 듯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것들은 지워버리고 새로



###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도시 만들어야

은 한견주의의 가치적 전이효과를 문화 경쟁력으로 포장하여 소란스럽게 내놓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현실성에 의문이 가는 관념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 하나 하나는 국민의 혈세임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중·장기 정책이 입안되어 있다기보다 경제논리를 토대로 성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해진다.

어떻든 서울은 한국의 얼굴이고 가치이다. 지금처럼 깊이 없이 가볍고 화려한 아이디어만 있는 정책으로는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 관에서

이끌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필요한 곳에 따라 찾아 지원해 주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중심인 요란스럽지 않은 낮은 자세의 문화행정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의 사회 환경에서 삶의 즐거움을 채득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상투적인 단언조차도 세월의 이기가 건 거리에서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멋진 음악과 춤에 담아 보여 질 때 잠시나마 현실을

있고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럼에도 갈수록 도시속제가 자기 과시적이고, 자극적이며, 외형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화는 없고 쇼만 있다. 진정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는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온 터전을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 하여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재건축과 도쿄 모리 미술관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리처드 글록먼은 한국을 방문했 옛 건물을 무조건 부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나마도 서울 강북은 그자체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지역이다.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이 100여점도 남지 않은 서울을 과연 이대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밀어 버려야만 좋은 일인가.

삼막한 도시의 거리를 걷노라면 '보현시왕가(普賢十願歌)'의 음율이 들려오는 듯하다. 삶의 기층에서 거대한 실존의 꿈과 현실을 보여주는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던가. 보현보살의 행력으로 이루어진 이 노래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라는 함축된 교훈이 담겨 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불만평

박구원

부처님 귀가 필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한국불당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6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사부대중 테마칼럼

#### 6월의 테마-보는

1980년 겨울, 나는 무작정 동국대학교를 찾아갔다. 불교를 접하게 된 두어 달 후였다. 불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노크하며, "불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청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당돌한 부탁을 했다. 교수님들께서는 다른 학교 출신의 학생이 찾아와서 하는 당돌한 정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청강을 허락하셨다. 청강의 절차나 수강신청의 절차도 없이 개강하던 날부터 <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사> 등의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께서는 불교학과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과 다름없이 지도해주셨다. 불교 교양대학도 흔치 않던 시절에 나는 그렇게 불교를 알고픈 갈증에 목을 축였다. 1년을 청강하며 불교 공부를 한 후에 내가 다니던 숙명여대로 돌아와 대학원에 진학했고, 인도의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다.

<불행천정품>에

## 법의 바퀴를 굴리신 은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걱정할 하며 법을 펴기를 망설였지만, 법전의 간청을 듣고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초전법륜자인 사르나트(녹야원)로 향하셨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르나트는 부다가야에서 1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부지런히 걸어도 1주일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이 거리를 걸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셨다. 이 초전법륜이 오늘날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된 연인이다.

돌이켜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이 이 심오한 경지를 이해할까'하며 망설이셨듯이, 당돌하기 짝이 없는 나를 보고, 교수님들도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청강을 허락하시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지 않았다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불법(佛法)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작정 연구실을 찾아갔던 그날의 교수님들이 나에게 불교 공부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면 오늘날 내가 인도사를 연구하는 불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법의 바퀴를 굴리셨고, 내가 만난 교수님들은 나를 위해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부처님과 교수님들의 큰 은혜를 제대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깊은 후내라도 내며 살고 싶다. 아마도 내가 유마경의 한 구절 '중인불충 우안인지(衆人不請 友而安之: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편안케 한다)를 좌우 명으로 삼게 된 것도 부처님과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직 턱없이 부족한 중생살이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찾아와 불교를 접하고 싶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으나 손은 내밀어 주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박규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연꽃의소리 대표

##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히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쫓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공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어떻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자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